다도해의 보석 섬

⑪ 무안군 망운면 탄도

때묻지 않은 '청정갯벌' 속살 드러내니 황홀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 나루 선착장에서 바라본 탄도 전경. 육지와 직선거리로 2.5km 떨어진 탄도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는 썰물 때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탄도만의 중심 섬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휴어기'인 8월에는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그늘에 담소를 즐기며 여름을 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간조땐 걸어 2.5㎞ 섬 아닌 섬

숯가마터 복원 등 명성되찾기

조용했던 섬 활기…주민들 기대

눈이 부셨다. 3년 만에 찾아온 태풍 '뎬무'가 휩쓸고 지나간 탓인지 한여름 서남해안 하늘과 바다는 더욱 푸르렀다. 태풍이 북상한 뒤끝인데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탓에 전남 서해남해안은 여전히 많은 피서 인파로 붐볐다.

탄도(炭島)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국도를 타고 내달리면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다.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 나루 해안에서 서쪽을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탄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직선거리로 2.5km.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 나직이 불러도 건너편에서 대답할 것 같은 지척 거리에 있는 곳이다.

간조 때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면서 걸어서 육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섬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다.

하지만, 보통 때는 조금 나루 선착장에서 배로 10분여 정도를 가야하는 천상 섬이다.

탄도리 주민 김용국(54)씨의 0.6t급 '쌔네기' 어선을 타고 5분여를 달려 탄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들어서니 0.5~0.6t급 어선 10여 척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있다. 낙지잡이 등이 주요 생계수단인 탄도 주민들의 유일한 생계 도구인 셈이다.

섬은 북쪽에 49m 높이의 구릉이 있을 뿐 대부분 평지다. 섬 전체 면적도 0.50㎢로 그리 넓지 않다. 해안선(5km)을 따라 족히 1시간 정도만 쉬엄쉬엄 걸으면 섬 일주는 끝난다. 지금은 30가구에서 67명의 마을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애초에는 김씨와 박씨 등이 살았지만, 처가로 살러 들어온 사위들이 늘면서 현재 6개의 성씨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친척이다.

450년 전 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곳은 처음에 여울도라고 불리다가 이후 '숯이 많이 나는 섬'이라고 해서 탄도로 불렸다고 한다.

마을 이장 김영복(64)씨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숯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나무가 섬을 가득 메웠고, 상당량의 숯을 생산하면서 '탄도'로 불리어졌다"면서 "숯을 대량으로 옮기는데 배가 가장 좋은 교통수단인데다 특히 육지와도 가까워 숯 생산지로는 최적지였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지명유래를 설명했다.

현재는 소나무도 많지 않고, 숯 가마터 흔적도 없다. 하지만, 조만간 숯 가마터 복원과 함께 숯 가마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고 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김영복 이장은 "최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숯 가마터 복원과 갯벌·낚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곳에 만들 계획"이라며 "옛 명성도 찾고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 수익도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탄도는 무안군 탄도만(灣) 중심 섬이기도 하다. 북쪽으로는 무안군 해제와 망운면이 자리하고 있고, 서남쪽으로는 신안군 지도와 사옥도·매화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사실상 탄도는 무안과 신안군의 경계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탄도 지형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용의 여의주라고 불리는 탄도 북쪽으로 무인도인 '야광주도'와 그 앞에 '용샘'이라고 하는 둠벙이 있다. 김 이장은 "용의 형상 필수요건으로 여의주와 샘물이 있어야 하는 데 탄도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 나루도 탄도를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사리 때는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때만 배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조금 나루로 이름 붙여졌다.

봄, 가을만 되면 150여 척의 낚싯배가 탄도 서북쪽 바다를 가득 메운다. 농어와 민어, 돔 등 그만큼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섬 남쪽으로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느린데다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 넓은 청정 갯벌이 있다.

물이 빠지고 광활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관광객들에게 온갖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천혜의 관광지인 반면 주민들에게는 생계 터전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낙지와 게, 파래, 굴, 고막, 조개, 바지락 등을 채취해 자식들을 키웠고, 넉넉한 삶을 이루고 있다.

탄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소형 어선이 선착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하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다고 한다. 박용술(57) 어촌계장은 "낙지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통발 어선들이 알을 밴 낙지까지 싹쓸이해가면서 낙지 생산량이 과거와 달리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탄도는 육지와 가깝지만, 아직까지 관광지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피서철이 한창이지만, 섬 에선 관광객이나 피서객을 손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섬 마을일 뿐이다.

하지만, 섬 주변에는 관광자원이 풍족하다. 물 빠진 드넓은 갯벌과 섬 북쪽으로 개발되지 않은 작은 해수욕장도 명소다. 숯 가마터가 복원되고 각종 관광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도'는 육지와 비록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이지만, 주민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은 그대로다.

김오래 부녀회장은 "풍부한 어족과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만큼 탄도가 관광어촌으로 거듭나면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에게 때묻지 않은 서남해안 갯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서개발을 통해 탄도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